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재정적자, GDP의 6%로 확대 전망
— page 1
- PEZA, 행정직 근로자 재택근무
제한에서 제외 — page 2
- 마르코스 대통령,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받아 — page 2-3
- AI는 필리핀 경제를 1조8천억
페소 끌어올릴 수 있다 — page 3-4
- 정부, 삼성 10억 달러 프로젝트
인센티브 준비 — page 5
- NGCP “송전 요금 인상으로 이번
달 전기요금 상승” — page 5
- 보고서: 부패와 정치 분쟁이 경제
성장 저해 — page 6-7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7-8

재정적자, GDP의 6%로 확대 전망

August 13, 2025 | Marco Luis Beech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 한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 역풍 속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의 둔화를 시사한다.

BMI 국가위험 및 산업연구(BMI Country Risk & Industry Research)의 조사 결과, 2025년은 대외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져 필리핀의 제한적인 경제정책 여력을 압박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조치가 전면 시행될 경우 대외 수요를 더욱 위축시키고 기존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급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는 국가부채 비율이 2024년 5.7%에서 올해 5.5%로 완화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재정적자는 전년 동기 6,139억 페소에서 약 25% 증가한 7,655억 페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정부 지출 증가 속도가 세수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란 정부가 세입으로 거둔 수입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 속도가 다소 완만해졌다.

BMI는 정부가 중기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GDP 대비 21.9% 수준인 정부 지출을 1%포인트 늘릴 필요가 있다고 추정했다.

BMI는 “필리핀의 재정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로, 팬데믹 이전 40% 수준이던 국가부채비율이 약 60%까지 상승했다”며 “이는 재정 회복 속도에서 필리핀이 역내에서 뒤쳐진 국가에 속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한 BMI는 높은 차입 비용과 제한적인 세입 기반이 필리핀이 부채 지속 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필리핀의 국가부채비율은 1분기 62%에서 63.1%로 상승했다.

조사 결과, 미국의 관세 전면 시행과 더 넓은 범위의 무역 분절화가 미칠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불확실한데, 지정학적 긴장과 공급망 변화로 인해 잠재적 경제적 과급 효과를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영향은 우려했던 것보다 덜 심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MI는 “정책 결정자들이 재정 지출에만 의존할 가능성은 낮다”며 “통화 완화, 맞춤형 보조금, 특히 아세안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무역 파트너 다변화 노력을 포함한 보다 균형 잡힌 정책 대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MI는 필리핀이 제한적인 재정 여력과 증가하는 대외 위협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구조적으로 더 낮은 GDP 성장률을 수용하거나 재정 조정 일정을 연장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study by BMI Country Risk & Industry Research found that 2025 brought a more challenging external environment, potentially hindering efforts and straining the Philippines' already limited economic policy space.

Miguel de Guzman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3/2465035/fiscal-deficit-seen-widening-6-gdp>

PEZA, 행정직 근로자 재택근무 제한에서 제외

August 12,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경제구역(ecozones) 내 재택근무(WFH) 인원 제한에서 행정직 근로자를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ZA 테레소 오. 판가(Tereso O. Panga) 청장은 2025년 화요일에 열린 PEZA 워터 포럼(PEZA Water Forum) 행사에서 “재무나 행정 부서처럼 민감하지 않은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직과 재무 부서 인력을 기준치에서 제외함으로써 재택근무 비율을 현재 50%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조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와 컨택센터 상담원은 재택근무 인원 제한(WFH cap)에 포함되는 직군이다.

그는 “이 사안은 안전을 위해 제정인센티브심의위원회(FIRB)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며 “이에 대한 지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IRB는 PEZA와 같은 기관이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규제한다. 재택근무 방식은 인센티브를 받는 경제구역 입주 기업들이 법적으로 일정 비율의 업무를 현장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판가 청장은 재택근무 정책 시행세칙(IRR)이 이르면 이번 달에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협의는 마쳤지만, 필리핀 정보기술·비즈니스프로세스협회(IBPAP)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발표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위원회의 정책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 원칙적으로 50%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기본 규칙이지만, 정책적 고려 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회복 및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 활성화 법안(CREATE MORE Act)’에 따르면, 등록된 기업은 전체 인력의 최대 50%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판가 청장은 CREATE MORE 시행세칙이 제조업체에도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IT 업종뿐 아니라 제조업체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CREATE 법 초기에는 IT 업종에만 한정되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5/08/12/691143/peza-to-exempt-admin-workers-from-wfh-cap/>

마르코스 대통령,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받아

August 12, 2025 | Lorenz S. Marasigan | BusinessMirror

PLDT와 글로브 텔레콤(Globe Telecom)사는 헌법적 합헌성, 규제 불균형,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인터넷 접근성 확대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 KP) 법안’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요청했다.

PLDT의 마릴린 빅토리오-아키노(Marilyn Victorio-Aquino) 법무총괄은 이 법안이 데이터 전송 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다른 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유사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현행 운영 사업자들에게 그러한 접근이 “필수적”임을 입증하지 않은 채, 그리고 사이버 보안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신규 진입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산”을 개방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와 가입자 모두에게 수많은 사이버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말라카냥 대통령실 법률담당 차관실로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보냈다. 우리는 헌법적 합헌성 문제와 대통령이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화요일에 말했다.



(AP/Carolyn Kaster)

[Cont. page 3]

마르코스 대통령, ‘코넥타동 피노이(Konektadong Pinoy)’ 법안 거부권 행사 촉구받아

[Cont. from page 2]

아키노는 이 법안이 법률로 서명될 경우 “우리는 헌법적 합헌성 문제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의 법률고문 프로일란 카스텔로(Froilan Castelo)는 공정한 경쟁과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의 존경받는 인사와 저명한 인물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제기한 우려를 대통령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핵심 사항은 규제 불균형, 불공정 경쟁, 그리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감독 부족”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부(DICT)는 이 법안을 옹호하며, 이는 규제 감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통신위원회(NTC)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 품질, 공정 경쟁 관련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는 다단계 국가안보 심사를 거치게 되며, 핵심 디지털 인프라는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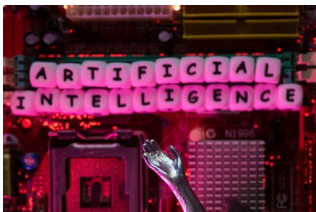
이 법안은 2월에 하원에서 3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특히 원격지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1,000개 이상의 소규모 인터넷 제공업체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파수 관리 개선, 인프라 의무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법안을 승인할지 거부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결정까지 12일이 남아 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12/marcos-urged-to-veto-konektadong-pinoy-bill/>

AI는 필리핀 경제를 1조8천억 페소 끌어올릴 수 있다

August 13, 2025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can potentially boost the Philippine economy by P1.8 trillion, according to a new report. —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

구글 필리핀과 컨설팅 회사 퍼블릭 퍼스트(Public Firs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들이 업무와 역량 개발(업스킬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점점 더 활용함에 따라 AI는 필리핀 경제를 최대 1조8천억 페소(약 310억 달러)까지 성장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현될 경우 필리핀의 국내총부가가치(GVA)가 7% 증가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글로벌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경제 기회 보고서(Economic Opportunity Report)’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구글 필리핀 및 베트남의 마케팅 매니저 가브리엘 록사스(Gabriel Roxas)는 화요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 새로운 기술은 마치 필리핀에 새로운 성장 엔진, 새로운 산업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통해 습득한 기술은 평균 근로자의 생산성을 연간 11만 페소(약 2천 달러) 향상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현재의 AI 기술이 전체 근로자의 약 37%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I는 평균 근로자의 주당 약 3시간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를 절감시켜, 보다 생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을 6% 이상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록사스 매니저는 AI의 경제적 이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 현재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품, 또는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순간이며, 이는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새로운 영역이자 수익원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AI는 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전반적인 근로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t. page 4]

AI는 필리핀 경제를 1조8천억 페소 끌어올릴 수 있다

[Cont. from page 3]

필리핀 전역에서 AI 도입은 젊고 모바일 중심적인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구글과 퍼블릭 퍼스트 보고서는 AI 도입률이 젊은 근로자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중위 연령이 26세인 필리핀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록사스 매니저는 “젊은 근로자층에서 더 높은 AI 도입률을 확인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상적인 생산성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익숙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I는 전통 산업과 신흥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AI를 통해 4,100억 페소(약 72억 달러)의 부가가치(GVA)를 창출하며, 이는 9%의 GVA 증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록사스 매니저는 도·소매 기업들이 AI를 활용해 광고를 개선하고, 소비자 문의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필리핀 기업들이 꼭 시도해 보길 바라는 부분은 AI가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언어가 다른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 및 보험업은 AI를 도입해 더 나은 상품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기 사례를 탐지함으로써 3,000억 페소(약 52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GVA 12% 증가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 행정 및 국방 부문은 AI를 통해 GVA가 9% 증가하고, 약 1,090억 페소(약 19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록사스 매니저는 “AI는 조달 최적화, 병목현상 파악, 사기 적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민 서비스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며, “궁극적으로 정부가 각 시민과의 소통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을 개인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글과 퍼블릭 퍼스트는 스마트폰, 연결성,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확대되면 AI의 필리핀 내 전체 경제 효과가 370억 페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퍼블릭 퍼스트는 AI가 사이버 위협과 사기, 농업, 공공 부문 문제 등 필리핀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반 솔루션은 사이버 보안 위협과 사기로 인한 비용의 약 절반(약 1,800억 페소)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AI는 위성 이미지, 기상 예보, 농장 센서 등을 활용해 필리핀 농업 부문의 생산성을 약 1,200억 페소 향상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AI 도구가 반복적인 업무를 간소화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5%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록사스 매니저는 “인공지능을 통해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면 정부 인력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리핀 거주 온라인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개인 생활에서 매주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업무에서 이미 AI를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12개월 안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록사스 매니저는 “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이미 상당히 보편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글과 퍼블릭 퍼스트의 조사에서는 필리핀인의 87%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록사스 매니저는 이는 사람들이 AI를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파트너’나 ‘튜터’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리핀인의 약 88%는 AI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술 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록사스 매니저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협력해 AI 학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태계이자 공동체로서 함께 교육과 학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 경제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13/691122/ai-could-boost-philippine-economy-by-p1-8-trillion/>

정부, 삼성 10억 달러 프로젝트 인센티브 준비

August 14,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에 따르면, 정부는 삼성전기 필리핀(Samsung Electro-Mechanics Philippines Corp., SEMPHIL)의 1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과 관련해 전력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올해 3분기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재정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테레소 팡가(Tereso Panga) PEZA 청장은 전력 보조금은 아직 승인이 필요하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그는 “전력 보조금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이미 관련 메커니즘과 산정 공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들이 전력 요금에 합의했으며, 이번 주에 해당 산정 공식이 재정인센티브검토위원회(FIRB)에 승인 요청을 위해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IRB 승인을 받은 후, 인센티브 패키지는 대통령실(OP)에 상정되어야 한다.

OP(대통령실) 승인을 받은 후, 팡가 청장은 해당 프로젝트가 투자유치기관 등록을 위해 PEZA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이 절차를 3분기 내에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분기 내 승인을 받는 것은 일정에 맞는 것으로, SEMPHIL이 내년 1월에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SEMPHIL은 라구나주 칼람바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SEMPHIL은 전자 기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 세라믹 커패시터, 탄탈 커패시터, 인덕터, 칩 저항기를 생산하고 있다.

CREATE MORE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고부가가치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란 최소 500억 페소(또는 이에 상응하는 미화) 이상의 투자 자본을 보유하거나, 최소 1만 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4/2465259/government-readies-incentives-samsungs-1-billion-project>



NGCP “송전 요금 인상으로 이번 달 전기요금 상승”

August 14,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The Manila Times 필리핀 국가전력망공사(NGCP)는 수요일, 송전 요금 인상으로 인해 이번 달 소비자들이 받게 될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NGCP에 따르면, 7월 청구 기간의 평균 송전 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3233페소로, 6월의 1.2113페소/kWh에서 상승했다.

이번 인상은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NGCP의 최대 허용 수익과 미수금 회수를 승인한 데 따른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RC는 앞서 kWh당 0.0384페소를 8개월 동안 회수하는 방안과, 66억2천만 페소의 최대 수익을 승인했으며, 이는 kWh당 0.0629페소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NGCP는 이번 승인으로 전력망 강화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GCP의 시니어 부사장 Syynthia 페레즈-알라만자는 기자들에게 “기술적으로 우리 요금이 인상된 것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현재 보게 되는 인상분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력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했으나 이전에 회수하지 못했던 비용에 대해 ERC가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NGCP는 수익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된 금액만이 회수 가능하다. 이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금액만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8/14/business/top-business/higher-power-bills-this-month-due-to-transmission-charge-increase-ngcp-says/2167370>

보고서: 부패와 정치 분쟁이 경제 성장 저해

August 13, 2025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A makeshift house floats along the seawall of Manila Bay in the Parañaque area, serving as temporary shelter for fishermen. This free-of-charge housing option provides refuge for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living on the streets or renting.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에 따르면,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이 마르코스 행정부 하에서 여전히 필리핀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발표한 행정부 중간 성과 보고서에서 지난 3년간 필리핀의 경제 실적이 “고무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며,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고위급 갈등” 으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적 안정성이 가장 낮은 경제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간 마르코스 대통령이 거둔 진전은 경제 전망에 있어 고무적이다. 그러나 부패와 정치적 불안정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이러한 진전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리핀은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역내 최고의 성장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고 덧붙였다.

싱크탱크에 따르면, 2023~2024년 국내총생산(GDP)은 평균 5.6% 성장했으며, 올해는 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2025년 3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2%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7월에는 평균 0.9%를 기록해 중앙은행이 8월 통화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참고: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30/august-rate-cut-seen-as-tariff-chaos-clears>)

그러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세관청 개혁과 강화된 조달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부패 척결에서 “퇴보(backslide)”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되는 요인으로는 대통령 반부패위원회(PACC)의 폐지와 국가 주권펀드 운영의 투명성 부족이 꼽혔다.

2022년, 대통령은 말라카냥의 세 개 부서를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폐지했으며, 여기에는 PACC도 포함됐다. (참고: <https://businessmirror.com.ph/2022/07/07/pacc-abolished-pcoo-its-units-folded-under-office-of-press-secretary/>)

2024년, 당시 아킬리노 피멘텔 3세 상원의원과 바얀 무나당 하원의원들은 대법원에 공화국법 제11954호, 즉 2023년 마하틀리카 투자기금(MIF)법의 시행을 즉각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제차 제기했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2/koko-et-al-renew-plea-for-sc-to-strike-down-maharlika-fund-law/>)

그러나 국부펀드의 운용진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올해 투자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7/08/mif-managers-to-proceed-with-investment-plans/>)

한편, 이 싱크탱크는 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리핀이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는 노력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4년 6월 내각에서 사임했으며, 올해 초에는 부패와 함께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마르코스를 겨냥할 청부 살인범을 고용했다는 혐의로 탄핵당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해당 탄핵을 무효화했지만, 내년에 또 다른 탄핵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의미 있는 개혁’

한편, 마르코스 행정부는 2026년 투명한 거버넌스와 제도적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1조3,670억 페소의 예산을 배정하여 관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금액에는 1조1,910억 페소의 국가세금 배분액, 161억 페소의 지방정부 지원자금, 15억 페소의 국가정부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예산이 포함된다.

[Cont. page 7]

보고서: 부패와 정치 분쟁이 경제 성장 저해

[Cont. from page 6]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하원에 제출하며 “참여적 거버넌스를 심화하고, 공공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개혁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행정부는 필리핀이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무성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관리부(DBM)는 2024년 10월 세계 ‘오픈 거버먼트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운영위원회에 합류했다.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투명한 국가로 평가된 ‘오픈 예산 조사(Open Budget Survey)’에서 필리핀의 1위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부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지출태깅(CCET·Climate Change Expenditure Tagging)을 포함한 예산 태깅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DBM은 예산이 기후 대응, 재해 회복력, 성평등, 아동 친화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프로그램 수렴 예산(PCB·Program Convergence Budgeting)을 강화해 프로그램 중복을 없애고, 사업 목표, 수혜자, 자원 소요, 시행 일정의 일관성을 부처 간에 확보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e마켓플레이스(eMarketplace)를 통해 조달 절차가 개선되고 조달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들은 이 플랫폼이 부패 방지, 경쟁 촉진, 관료제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Image credits: **Nonie Reve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13/report-corruption-political-spat-stunt-economic-growth/>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오프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의 저명한 리더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 전략과 기업 성장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 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성장 유망’ 부문인 ▲농기업(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첫날에는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7개 부문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토크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스폰서십 문의는 아랑카다 필리핀 웹사이트의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Sponsorship Tier)],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HON. RALPH RECTO

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PANELISTS, MODERATORS, AND PRESENTE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PAU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DR. ENRICO BASILIO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ROSEMARIE RAFAEL

CHAIRPERSON & PRESIDENT
AIRSPEED



DR. DANI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ICHAEL ARCATON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GRACE MIRANDILLA-
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REGISTER NOW!

Scan the QR Code or visit our event website a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register.
For inquiries, please email us at forum@arangkadaphilippines.com.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ORGANIZER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How can the technology that has shaped our world, now save it?

Business has the power to harness data and technology to create value for business, society and the planet.

Value-led sustainability is everybody's business. Make it yours.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



© 2023 SGV Co. All Rights Reserved.